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결정

전주시, 중소기업·소상공인 48개 업체 지원 의결... 청년기업에 10억원 융자키로

전주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힘겨운 청년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안전을 돕는다.

시는 전주시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기업 활동 환경을 제공,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올해 총 82억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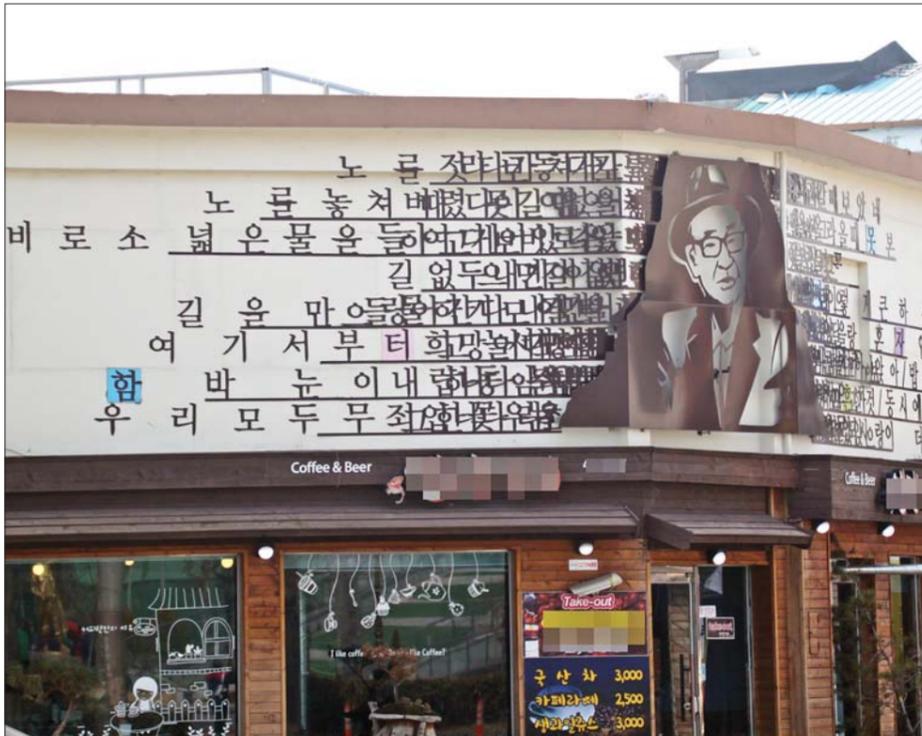
이를 위해 이날 전북경제통상진흥원 1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경영난과 수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8개 업체에 대해 융자를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융자 용도는 운전 및 창업 자금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2억 7000만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기업에 우선적으로 10억 원의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 경영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융자 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으로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8개 금융기관에서 2개월 이내 융자(대출)를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중 일반기업은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바이)전주 업체, 우수항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각각 3.5%의 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군산 시간여행거리에 걸린 고은 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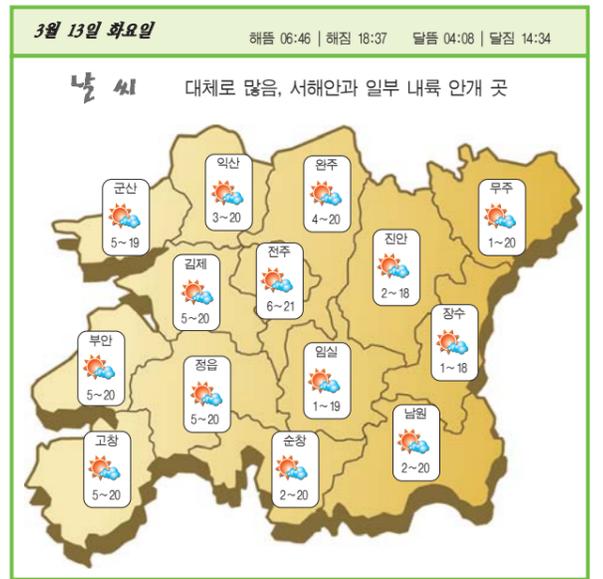
12일 고은 시인의 모습과 시구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앞 커피숍 건물에 걸려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자금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미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금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익산 남중학교, 문화공간 활용할 것”

천호성 도교육감 예비후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천호성 예비후보가 “폐교된 남중학교를 학생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밝혔다.

12일 천호성 예비후보는 익산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재산은 지역의 자산”이라며 “폐교된 남중학교를 활용해 꿈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러 “이 공간은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천 예비후보는 “익산지역에 현재 교육특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교육 수장과 자치단체장이 교육 특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구 프로그램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고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도교육청, 성교육 전문강사 15명 선발

15일까지 접수... 보건교사 미배치교 연말까지 순회교육

전라북도교육청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성교육 전문강사를 선발한다.

도교육청은 성교육 전문강사 15명을 선발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도내 초·중·고교의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강사 지원 자격은 개인의 경우 ▲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 3년 이상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거나 ▲이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간호학 전공 후 이동·청소년, 여성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체의 경우 ▲2년 이상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

는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동·청소년, 여성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단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참여 인원은 최대 7명 이내로 제한된다.

원서는 오는 15일 오후 5시까지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건강교육담당에 접수해야 한다.

선발된 전문강사들은 도교육청과 계약을 맺고 올해 12월까지 보건교사 미배치교를 순회하며 성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성교육은 1교당 3시간 이상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되며, 도교육청은 전문강사의 성교육을 위해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학생기자단 모집

전북도교육청이 제9기 학생기자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평소 글쓰기와 기자 활동에 관심이 많은 전북도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총 90명을 모집한다.

지원 희망자는 자기소개서와 사진을 첨부해 전북교육소식 홈페이지 <http://news.je.go.kr> - 학생기자단 모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합격자 발표는 3월말에 한다.

학생기자단은 월 1건 이상 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기자교실, 현장체험학습, 학생기자신문 발간 등에 참여한다. 내년 2월에 활동보고회를 통해 우수기자 시상, 기자증 수여 등이 있다. /이성민 기자

도박·인터넷 등 중독문제 해결·예방 돕는다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난해 이용자 3224명... 알코올 54.8%·도박 41.5%

전주시가 알코올과 도박 등 각종 중독문제로부터 시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보호하는데 앞장선다.

전주시보건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중독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과 직장인, 여성, 노인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으로부터 회복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여가활동을 위한 DIY 체험프로그램 ▲찾아가는 작은 상담소 운영 ▲지역사회 통장 네트워크를

통한 중독문제 조기 발굴 및 서비스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중독 대상자들을 돕고 있다.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중독문제로 인해 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총 3224명으로 알코올 문제(54.8%)가 가장 많았고 도박 문제(41.5%), 인터넷문제(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70.8%)이 여성(29.2%)보다 많으며, 연령대로는 30~39세(26.2%), 40~49세(19.3%), 50~59세(18.9%), 20~29세(17.2%), 60세 이상(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와 의뢰자와의 관계는

‘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보다 약 6%p 상승한 65.1%로 가장 높아 중독문제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이 높아져 중독자 본인이 직접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알코올, 도박, 약물,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회복과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